

### 둘러보는 '관광' → 공부하는 '순례'

# 답사문화 바뀌고 있다

#### 지자체들 문화유산 해설사 배치 관광공사 명예 통역안내원 구성

요즘 경주의 문화단체들이 무척 바빠졌다고 한다. 고도(古都) 경주를 찾는 외국인들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에는 말 그대로 '관광(觀光)'이라고만 생각하고 승용차나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유적지를 대충 훑어보고 떠났지만, 요즘은 '답사(踏査)'라는 말에 걸맞게 미리 자료를 챙겨보고 세심하게 살피는 경우가 많아 현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

우가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달라진 모습은 중·고등 학생들의 수학여행, 수박 곁잡기식 여행이 아니라 탐, 불상, 절터 등 테마를 정한 뒤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주제 답사로 바뀌는 추세다. 부산역사교사모임이 '청소년 역사기행'을, 대동문화연구회가 '세대·계공간 벽화는 문화체험'을, 예술마당 숲이 '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답사'를 정기적

으로 실시하는 등 청소년 답사기행도 늘어나고 있다. 경주박물관 등 지역 박물관들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학교를 만들어 이론·현장 교육을 통한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들을 양성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답사 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신라 사람들'에 따르면 지난 봄에 50여건의 답사팀을 안내하는 등 연간 가이드 건수가 100건, 경주 방문단 전체로는 연간 300팀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답사전문 가이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들은 '문화유산 해설사'를 양성, 오는 8월부터

현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전남도가 8월, 경남도와 대전시가 9월부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비롯 나누시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유적 현장교육을 통한 '전 공무원의 관광요원화'를 추진중이다. 문화유산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유산 보호와 정화, 외국인 안내를 위해 '관광환경 파수꾼과 명예통역안내원' (www.goodwillguide.com)이란 자원봉사 사이트를 최근 오픈했다. 대구와 부산에서는 97년부터 '문화재지킴이 시민모임'이 구성되어 한사람 한 유물지킴이, 사라진 문화재 찾기, 유적지 정화 및 안내판 세우기, 문화재교육과 정기답사, 훼손문화재 감시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은 "불교답사문화의 성숙을 위해서는 예불과 참선 체험·등 공부와 신행이 결합된 세심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참나 찾는' 산사수련회

여름 산사수련회가 화천 해인사를 시작으로 40여 사찰에서 잇따라 열린다. 6월 26일부터 시작된 해인사 여름 산사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이 참나를 찾는 참선을 하고 있다. 좌선, 불교교리 공부, 발우공양 등을 익히는 수련회에서 불자들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다. 해인사=고영배 기자

### 전불련 활동재개

#### 통일문화제·세미나 등 준비

전국불교운동연합은 6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계를 대표하여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전불련은 통일원에 통일단체로 등록하고, 통일문화제 개최, 북한방문, MD반대운동, <통일평화포럼> 발행등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20년 불교통일운동사'를 정리하는 불교통일 세미나 개최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불련은 6월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5대 공동대표에 김준길(CK TRADE 대표) 박희태(위덕대 기획과장)씨를 추대했다. 김원우기자

### "김소장 명예회복 안되면 불교단체 구명운동 전개"

#### 동국대불교대학원 총동창회 등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법세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학생회장 성필스님,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이사 정태동씨는 6월 27일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김태복 장군 문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장군의 명예회복에 상반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총무원, 승가대학 등 여러 단체와 협의해 김 장군 구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세 단체 대표자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시주금이 뇌물로 간주될 경우 전 불자가 나서 오관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 "사형제도 폐지하라"

#### 7대종교 거리행진

"사형제도 폐지하라."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7대종교 연합단체인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회'는 6월 29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택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에서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갖고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생명의 신성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사형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왼쪽은 조계종 사형제폐지위원회 위원장 진관스님. 김원우기자



### 섬마을 전법단 '뱃고동'

#### 동산반야회·정토회

#### 법사파견 불서보내기

섬 사람들에게 불심을 심어줄 '섬마을 전법단'이 4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동산반야회는 6월 28일 '정토회와 함께 포교 사각 지대인 섬 지역에 불법을 전할 '섬마을 전법단'을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에 따르면 전법단은 섬 지역에 법사를 파견하고 불서를 보내는 것은 물론 섬 지역 사찰을 거점으로 수련관,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도시 사찰과 자매결연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법단은 답사·전법·

후원팀을 상시 운영해 장·단기 포교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특히 영광군 낙월도, 웅진군 영흥도 등을 오는 11월까지 섬 포교의 모델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며, 내년 12월까지 섬 지역 전역에 걸친 실행지도도 실시한다는 복안. 출범식은 4일 오후 2시 동산반야회관 3층 법당. 오종욱 기자

### 새만금 반대 서명운동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상임대표 수경스님)는 6월 29일 조계사 농성장에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새만금 간척추진을 반대하는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청량산 공원 사찰신도 입장료 징수

### 조계종·청량사 '철회' 촉구

전통사찰에 종교적 목적으로 출입하는 신도들에게 경복도가 청량산도립공원 입장료를 무조건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종교자유 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관련기사 323호 1면) 조계종 총무원과 청량사 등이 입장료 징수 철회와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량산도립공원 부당징수대책위와 청량사총신도회는 6월 24일 경북도지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경복도가 입장료 징수를 이유로 종교활동저해 행위를 계속한다면, 종교자유및 불교문화 수호차원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도 6월 14일 환경부와 문화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당해 사찰신도는 물론 모든 신도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재경 기자

장료 징수 철회와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량산도립공원 부당징수대책위와 청량사총신도회는 6월 24일 경북도지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경복도가 입장료 징수를 이유로 종교활동저해 행위를 계속한다면, 종교자유및 불교문화 수호차원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도 6월 14일 환경부와 문화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당해 사찰신도는 물론 모든 신도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재경 기자

### 82일간의 봉축열차

#### 46만명 승차 "불교이미지 선양"

2545년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안고 82일간 382회에 걸쳐 5호선을 달리는 '봉축열차'가 6월 30일 운행 회향했다. 중년협의회는 봉축열차의 회향과 그 동안 풍경소리에서 추진해 온 지하철 포교계시판 '자비의 말씀' 불사가 전국 지하철에 설치됨에 따라 전국 지하철 자비의 말씀 계시판 설치 고별 및 봉축열차 회향법회'를 오는 7일 오후 3시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개최한다. 봉축열차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홍종만이 주재하고 한국불교중년협의회(회장 정대)가 주관하였으며 범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인 풍경소리대표이사 성원이 기획·운영을 담당하여 지난 4월 10일부터 도시철도 5호선 방화→상일 구간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그동안 봉축열차를 타고 관람한 연 인원은 약 46만명에 이르며, 봉축열차 관련 문의전화는 1,808건이었고 도시철도공사 소속 5~8호선 147개 역에 걸려온 문의전화도 1만 2,200여건에 달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풍경소리의 이용성 사무처장은 "봉축열차가 일회적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봉축열차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 석왕사 부천 송내체육관 수탁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석왕사 룸비니'는 지난 6월 19일 경기 부천시로부터 부천송내체육관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천 스포피아에 이어 석왕사 룸비니가 운영하는 두 번째 사회체육시설인 송내사회체육관은 부천시 송내동 457번지 8,735㎡의 부지에 지상 2층 건축면적 2,482㎡의 대규모 시설, 경기장, 운동기구실, 무대, 영화감상실, 샤워실 및 탈의실 등 각종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석왕사는 이로써 먹구름중흥사회복지관, 원종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의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게 됐다. (032)668-0076 김재경 기자

### 도와주세요



월세방에서 밥을 먹고있는 소영 양과 두 동생.

### '애타는' 소녀가장 소영양

강원도 동해시 묵호여중 2학년이 재학중인 소녀가장 정소영 양이 홀어머니마저 전신마비로 중환자실에 입원, 수술비와 입원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애태우고 있다. 4년전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한 후 어머니가 힘겹게 야채장사를 하며 8살 쌍둥이 남동생(영교·성교)들과 함께 살아온 소영 양은 어머니마저 최근 뼈가 목신경을 건드려 전신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불행을 당했다. 더구나 월 1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어린 세 남매가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소영 양은 직접 분사로 편지를 보내왔다. 집=(033)533-2812, 우체국(예금주 신순연)=012054-02-059059 김재경 기자

## 無病長壽

###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유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독자(자)마신시오. 진정한 유년수의는 운대에 만들어진 수의입니다.

종 명	역화정가	불자님가	특별 혜택
상예 - 2호	600,000원	550,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맥스 보관함
상예 - 1호	900,000원	798,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맥스 보관함
상예 특별	1,320,000원	1,1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맥스 보관함, 상예왕구 세트증정
수직 특별	1,870,000원	1,4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맥스 보관함, 상예왕구 세트증정
안동포 7세	4,200,000원	3,9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맥스 보관함, 상예왕구 세트증정

※ 10% 할인, 10% 추가 받습니다. (단, 10%는 날과 시간에 정액이 변동됩니다.)

株式會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 LTD.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천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혜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

##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물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라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

- ◎ 소재
  - 팔 괘: 고급나무 조각 목판 필라형
  - 만다라: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卍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하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운 끌어들이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들 모두 건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방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로 될 것입니다.

불문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 는 팔이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